

202階段의 受講生

書 元 鎬

<택시미터>가 學校正門에서 부터만도 최소한 한번 이상 “찰칵”소리를 내어야 가 닿는 成均館大學校의 淸 웅장한 圖書館建物, 그 支關에서 101개의 계단을 올라 가는 5層, 거기 『韓國司書敎育院』의 票札을 단 事務室 맞은 편에 우리 50명의 연령과 신분이 제각기 다른 외적인(?)學士들이 모여서 배우는 講議室이 있다.

백한개의 계단은 하루 受講을 위해서 오르내리기만 하는데 꼭 202, 불가피한 生理作用으로 아랫층 화장실에라도 두어번 다녀 온다면 實로 300을 헤아리는 훌륭한 運動코스가 아닌가.

그래도 나에겐 이 『運命의 階段』이 『때늦은 學生』들의 신세타령처럼 멋없고 긴것으로만 느껴져, 언제나 힘에 겨움고 처량하기만하다.

『現在の 文化的結實을 保存하고, 保存된것을 傳授하여 새로운 創造·發展의 母胎가 되는 作業이 不斷이 累積되어 文化發展의 求心點이 되는 使命을 다 하여야 하는 圖書館』의 第一線役軍이 되어야 할 『여러분은, 대부분 직장과 가정생활에 쫓기면서 이제부터 또 夜間講義를 받으셔야할 處地임에 앞으로의 一年코스가 매우 힘드는 試鍊期가 될것으로 생각되지만, 本敎育院 當局에서는 出席率을 成績評價의 三分之一로 算入토록 하는 原則이 決定되어 있으니 이點 銘心하시고, 부디 힘껏 배우고 연구하여, 重大한 時期를 맞은 우리 圖書館界의 精銳分子』가 되어 달라는 당부를 자꾸만 威脅처럼 느끼면서도, 자못 엄숙한 얼굴로 묵묵히 받아 업(負)고 출발한 生面不知의 『圖書館및 圖書館學』에 대한 工夫가 이제 約束된 코스의 終敎期에 왔다.

事實, 開院式과 同時에 入學式을 치른 第一期生으로서, 한 週에 나흘, 하루에 네시간, 한 學期 16學點, 修了學點 32學點의 꼭 찬, 신기한 이름들의 講座表를 받고 興味에 쌓인 受講을 始作 하던 그 무렵엔 저 階段 좁은 關心 밖의 것이었다.

한 분 한 분 講師님들의 얼굴에서 新生 學問의 開拓者와도 같은 毅然함을 느끼면서, 한 마디 述語도 注意 깊게 노트하고, 『우리 Class의 在學中 및 修了後에 있어서의 組織的活動의 基礎作業으로서 班 代表를 選

出』하질 때에는 鄭重하게 『貴重한 한 票』를 던지면서 나는, 通算 16年の 學校生活과 또 5年餘의 社會生活에서 한 번도 實感해 보지 못한 圖書館과 그 學問에 대한 깊은 魅力를 찾으려는 努力에 沒頭하고 있었다.

5時 30分, 모두들 時間에 임박 해서야 황급히 모여들어 가지고 연거퍼 4時間 授業을 끝 내고는 시장과 피곤이 겹치는 고달픈 몸으로 서로들 별다른 얘기도 없이 어두운 거리로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이 우리를 나이찬 學生들의 敎育院 生活이다.

이런 生活의, 그러나 매우 성실한 一面의 분위기에 익어가는 사이에 배운 것은 차츰 머리에 쌓이고, 눈을 제법 現實을 둘러 보게끔 자라고 있었다.

高名한 人事의 招聘講演도 들게 되고, 圖書館界의 重鎮으로 계속 활약하는 여러 指導者들과의 團體的 또는 個人的인 接觸도 생기게 되고, 圖書館實習敎育의 機會도 있게 되었다.

특히, A兄과 같이 나간 H大學圖書館에서의 週間의 前半期 實習에서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얻고 배웠다.

『圖書館學』은 現實의 『圖書館』에서 어떻게 外面 當하고 있는가.

뜻 있는 『圖書館人』은 이 現實을 어떻게 苦悶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적어도 이 時期에 있어서의 韓國의 圖書館및 그 學問은 우리 같은 올챙이 圖書館學徒에겐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어렵고 두거운 짐이라는 그런 結論이다.

한 여름 게으른 다리를 이끌고 저 푸른 하늘에 우뚝 솟은 講義室을 오르 내리면서 그 階段을 하나 둘 헤아리는 버릇은 아마도 이 지음 부터 비롯한 것임에 틀림 없다.

圖書館學은 어느 學問처럼 심오한 眞理의 探究를 目標로 하는 창백한 作業이 아니다. 圖書館는 열 피고 화려한 일터가 아니다.

나의 講義室 앞에 늘히 걸려 있는 變化없는 그 階段처럼 아물고 차분하고 고독한 것이다.

게다가, 오늘 우리의 圖書館이 맞이 하고 있는 山積

한 고된 가운데의 나의 情熱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저『現在の 文化的結實을 保存하고 保存된것을 傳授하여……』로 시작되는 웅장한 祝辭의 內實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受講生이 모두 알고 있다.

나는, 「圖書館의 苦悶」을 배웠다. 내가 배운 것은 다만 이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後輩도 맞이하고, 그들 新入生들에게 자그마한 「환영회」도 베풀어, 부득이 한 층의 것해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講義始作時間을 좀 늦추어 주십시오」, 「講義室을 옮겨 주십시오」, 「講義內容의 대강을 프린트 해서 나누어 주십시오」……등등의 투정도, 「한국사서교육원」은 『사서 고생하는곳』이라던 헤실꾼 才談도, 어느덧 자취가 없어지고 모두의 얼굴에서 한 가락 새 파란 覺悟의 빛같이 떠나지 않음을 본다.

202階段을 묵묵히 오르 내리며 訓練된 우리들 舊圖書館人(?)들은, 바야흐로 이른바 「修了準備」의 論議를 들으면서 이번엔 또 數字를 알 수 없는 벽찬 階段앞에 와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두 번째의 階段은, 言必稱 우리가 맞이한 第一의 苦悶이면서도, 모두들 그러나 自己만의 皮膚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하여 圖書館入門의 最少限의 過程을 끝 마친 후에,

우리의 圖書館界가 가지고 있는 山脈처럼 險峻한 階段을 다시 밟아 가는 사이,

좋은 일이나 굵은 일이나,

저, 202階段 위에 뿌린 나의 꿈이 섞인 맘을,

나는 영 잊지 못할 것만 같다.

(筆者 韓國司書教育院生)

(22面에서 繼續)

망삼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點에서 現在の 資料를 차근차근 整理하면서 보다 嶄新하고 價値있는 資料를 蒐集整備하여 늘 새로운 Information을 얻을 수 있는 生動하는 圖書館을 만들고 싶다.

둘째 學校의 教育活動속에 깊숙히 파고들어 깊은 紐帶를 맺으면서 各教科學習活動과 圖書館을 關聯시켜 圖書館을 積極的으로 活用하도록 意圖的인 努力을 傾注하려고 한다.

셋째 學生들에게 보다 幅 넓은 圖書館 Service를 提供함으로써 그들의 學習活動과 知的成長을 돕는 일에 注力하며 讀書를 生活化시켜 圖書館을 그들의 生活領域속에 끌어 넣도록 하는 運動을 벌리려고 한다.

넷째 圖書館을 통하여 學生들의 社會性을 기르고 遵法精神을 높이며 公共施設을 愛用하는 態度를 기르고 良心을 닦는 教育의 境으로 活用되도록 努力하고자 한다. 教育活動이 바람직한 人間形成을 돕는 活動일진대 圖書館은 그러한 活動의 境으로 適合하다고 본다.

맺 는 말

學校圖書館運動이 일어난지 不過 10餘年 그 사이 이 運動은 全國的으로 波及되어 모든 學校들이 다투어 學校圖書館을 設置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圖書館法의 施行은 이 運動을 더욱 促進시키는 役割을 하였다. 學校圖書館이 이토록 發展할 수 있었던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要約컨대 學校圖書館이 韓國의 現實에서 무엇

보다도 切實하게 必要한 것을 認定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祖國의 近代化의 課題를 目前에 두고 우리가 일찌기 近代化하지 못한 原因을 生覺해 보면 그 原因의 하나로 “읽지 않는 國民”이었다는 것이 添加되리라.

或者는 貴族社會의 學風을 말할지 모르나 一般化되지 않은 特殊層만의 學風이 國力の 바탕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世代는 圖書館과 因緣이 먼 生活 속에서 成長한 사람들이거니와 우리의 後孫들에게 까지 그런 傳統을 물려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時間과 空間을 超越하여 수 많은 知慧가 整頓되었고 숙한 人間の 珍貴한 經驗이 整然하게 간주려져 있으며 每日의 生活속에서 當面하는 許多한 問題들을 解決할 Information이 集結된 圖書館을 外面하고 서는 祖國의 近代化는 可望이 없는 것이다.

여기 새로운 젊은 世代에게 圖書館을 設置해 주고 圖書館教育을 통하여 그 使用을 習慣化시키려는 學校圖書館의 使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젊은 韓國의 知性人들이 날로 發展하고 새로와지며 急速度로 變化해 가는 現代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生活와 發展에 必要한 모든 Information을 찾는 方便으로 効果的으로 圖書館을 利用하게 되는 날 韓國의 將來는 光明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筆者: 龍山中·高等學校 司書教師)